

번호 19-1

제 목	국문	포항시 지역 산모의 모유수유 실태 조사			
	영문	A Survey on Breast-feeding of Woman in Puerperium in Pohang City			
저 자 및 소속	국문	임부들, 이주영, 박순우, 박정한 대구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영문	Ju-Young Lee, Soon-Woo Park, Jung-Han Park, Bu-Doll Lim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School of Medicine, Catholic University of Taegu			
분 야	보건관리 (○) 역 학 () 환 경 ()	발 표 자	일반회원 () 전 공 의 (○)	발표 형식	구 연 (○) 포스터 ()
진행 상황	연구완료(○), 연구중() → 완료 예정 시기 : 년 월				

1. 연구 목적

모유는 분유보다 영아의 건강과 정서발달에 더 도움이 되는 영아의 최고 영양방법이고, 산모의 건강과 피임에도 도움이 된다. 그럼에도 1950년대부터 발달된 분유의 사용 증가로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1970년대 분유수유율이 60%를 상회하였다. 그러나 모유의 장점이 밝혀지면서 미국에서는 적극적 모유수유 권장운동을 실시하여 모유수유율이 1970년 24.9%에서 1984년 61.0%로 증가하였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 모유수유율이 90%이상이었으나 1982년 전국 표본조사에서 59.1%, 1988년 48.1%, 1994년 11.4%, 1997년 14.1%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이에 1980년대부터 정부와 민간단체가 분유에 대한 광고의 금지와 모유수유 권장운동 등을 펴고 있으나 모유를 전혀 먹이지 않고 분유만 먹이는 산모의 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본 조사는 포항시 남구보건소의 모자보건사업 중 모유수유 권장사업에 앞서 지역의 수유실태와 모유수유의 장애 요인을 파악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효과적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2. 연구 방법

포항시 소재 의료기관 중 월평균 분만건수가 35건 이상인 5개 기관에서 1999년 9월 15일에서 1999년 10월 14일까지 출산한 산모 449명을 조사대상으로 1999년 11월 15일에서 12월 6일 사이에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전화 대담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완료된 대상자는 344명(76.6%)이었다. 조사된 산모와 되지 않은 산모 사이에 출생아의 성별 분포, 출생 체중 분포 및 37주미만의 조사아 비율을 비교한 결과 조사되지 않은 사람 중 조산아는 한 명도 없었고 조사된 사람 중 조산아는 4.4%였으며 나머지 두 변수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조사된 결과에 특별한 선택 편견이 작용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조사내용 중 산모의 일반적 특성, 수유에 대한 지식과 태도, 수유방법에 대한 출산 전 계획과 실제 수유방법, 실제 수유방법의 선택이유, 모유수유를 하지 못한 이유 등은 설문 조사하였고 산모의 산과적 특성은 의료기관의 의무기록을 이용하였다.

3. 연구 결과

99.7%의 산모들이 아기를 위하여 모유가 더 좋다고 알고 분유가 더 좋다고 알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그러나 모유가 더 좋은 이유를 구체적으로 잘 알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다.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도 긍정적이었다. 그러나 모유가 더 좋다고 알고 있다고 해서 실제 모유수유률이 뚜렷이 더 높은 것도 아니었다. 또 산전관리를 잘 받은 것과 모유수유률과도 관계가 없었다. 출산 전 수유방법에 대한 지식은 주로 주위 사람, 특히 친정 또는 시어머니와 친구나 이웃을 통하여 그리고 언론 매체, 주로 책, 잡지를 통하여 얻었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을 통하여 얻었다는 사람은 11.0%에 불과하였다.

모유수유률이 특별히 낮은 사람들은 24세미만, 저소득층, 저학력군의 산모와 종합병원출산, 조산아, 제왕절개분만의 경우였다.

거의 대부분의 산모가 출산 전, 특히 임신초기에 출산 후 수유계획을 하였다. 수유방법은 52.6%는 모유수유를, 40.7%는 출산 후 분유를 먹이고 퇴원 후에는 혼합수유를 계획하였으며 처음부터 분유를 먹일 계획인 사람은 5.2%뿐이었다. 그러나 모유수유를 계획했던 사람 중 출산 후 1~3개월이 지난 조사시점에서 계속 모유를 먹이는 사람은 21.8%뿐이었고 모유를 먹이다가 분유로 바꾼 사람이 35.8%, 혼합수유 24.0%, 분유수유 18.4%였다. 전체 조사대상자 중 출생직 후부터 조사시점까지 모유수유를 하고 있는 사람은 15.7%에 불과하였고, 출산직 후에는 모유수유를 하다가 분유로 바꾼 사람은 34.3%였다. 모유수유로 바꾼 경우, 처음부터 분유를 먹인 경우, 그리고 혼합수유를 하는 경우에 분유를 먹이게 된 이유는 “젖이 잘 나오지 않아서”가 제일 많았고, 그 외 몸이 아파서, 아기가 젖을 빨지 않아서, 함몰유두, 아기 황달 또는 설사 등이었다.

4. 고찰

조사 결과 산모들의 모유수유률은 20%이하로 낮게 나타났으므로 적극적 모유수유권장사업이 필요하며 다음과 같은 접근을 제시한다.

1) 모유수유에 대한 홍보

홍보대상은 산모뿐만 아니라 산모의 어머니 연령층의 여성들도 포함하여 모유의 장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교육한다. 교육시기는 분만 전후가 중요하며 특히 신생아 황달과 설사 등의 이유로 모유수유를 중단하는 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것이므로 소아과 의사들과 함께 바로 잡아 나가도록 한다. 교육매체는 책자를 이용한 집단 교육이 추천된다.

2) 출산 후 모유수유지도

퇴원 후 쉽게 모유수유를 포기하는데 그 이유가 젖이 잘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제일 흔하다. 그러므로 젖먹이는 요령과 수유에 따르는 어려움을 도와주는 보건서비스가 필요하다.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산모들은 저학력, 저소득, 24세미만의 젊은 층이다.

3) 출산 전 모유수유를 위한 준비

산전관리 기간에 일반 병·의원에서 모유수유를 위한 준비는 잘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보건소에서 이러한 준비를 도와주도록 한다. 특히 함몰유두와 같이 모유수유에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산모를 특별히 지도한다.

4) 민간 의료기관의 모유수유 지원 권장

종합병원에서 분만한 산모들의 모유수유률이 낮고 의사와 간호사들이 모유수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빈도가 매우 낮음으로, 분만의료기관과 관계 의료인들의 모유수유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종합병원들이 UNICEF가 지정하는 아기에게 친근한 병원이 되도록 권장한다.

5) 보건요원의 훈련

위와 같은 사업의 수행을 위해 먼저 보건요원들에 대한 훈련이 필요하다.